

“만민중앙교회 사랑해요~”

하나님 권능을 의지하여 인생의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으며 축복의 길로 인도받은 콩고민주공화국 세바스찬 집사가 한국에 왔다.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는 제단

목자와 온전히 하나 되고 각자의 본분을 다할 때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는 제단의 주역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중심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신을 개조하고 만들어 나갈 때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

“주를 만나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작은 섬김을 통해 영육 간에 축복받은 서홍자 권사와 질병을 치료받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은 네팔 비노드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720호 2016년 1월 1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에볼라를 퇴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콩고민주공화국 킌사사만민교회 세바스찬 임페토 판고 집사 부부

저는 2009년 자연환경관광부 장관 보좌관으로 근무할 당시 킌사사만민교회 성도인 동료에게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라는 책자를 건네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세계적인 부흥강사가 된 저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이었지요. 이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 킌사사만민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으며 믿음이 무엇인지 깨우쳐가던 2011년,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 마누엘라가 출생 당시 질병으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당회장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받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 뒤 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에 계신 당회장님께 기도요청 서신을 보내어 응답을 받곤 하였습니다.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죽어가던 딸이 살아난 후

지방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킌사사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뒤 정치에 입문하였지만,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었습니다. 오직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공직에서 거듭된 승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 등록 당시 자연환경관광부 장관 보좌관이었던 저는 어느 보좌관들과 마찬가지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앞길을 기도로 맡길 때 주님께서서는 에쿠아퇴르 주의 주도인 음방다까 시의 시장으로 임명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장직을 맡았을 때도 정치적인 이유로 시의 모든 재원이 차단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당회장님의 기도 에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에쿠아퇴르 주의 부주지사로 선출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모함과 오해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 당회장님께 기도요청 서신을 보내면 이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항상 기도해 주심으로 에쿠아퇴르 주의 주지사까지 될 수 있었지요.

권능의 기도로 승진하여 주지사로서 에볼라 퇴치를 위해 기도 요청해

그러던 2014년 8월, 에쿠아퇴르 주민들이 큰 혼란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 가서야 숲에서 사냥한 원숭이 요리를 먹은 사람들로 인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질병의 높은 전염력과 치사율은 과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킌사사에 절대로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는 조셉 카빌라 대통령의 특명을 받았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킌사사만민교회 이호수 담임목사님에게 “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목사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하시며 당회장님께 기도를 요청하면 에볼라 바이러스가 멈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당회장님께 기도요청 서신을 보냈고, 당회장님께서 9월 21일에 기도해 주셨다는 연락을 받았지요.

그 뒤 매일매일 에볼라 바이러스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던 저는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날로부터 새로운 발병 건수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조셉 카빌라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멈췄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에볼라 질병을 퇴치시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당회장님 권능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 세바스찬 임페토 판고 집사(현재 추아파 주 부주지사)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직접 만나 자신의 놀라운 간증을 전하고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24일,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당회장실에서 축복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탄 전야 행사와 25일 성탄 축하 예배에 참석하였으며, 26일에는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바뀐 무안단물터(출 15:25)를 방문하였고, 다니엘철야 기도회에도 참석하였다. 27일에는 주일 대예배와 저녁예배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갔다. 세바스찬 집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만민중앙교회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더해졌으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 같으며 행복해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는 제단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4)

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또 권세 있는 말씀을 보장하는 권능의 역사로 강박한 심령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특히 2000년부터 인도한 열두 번의 해외 성회는 권세 있는 말씀과 권능의 힘을 확실히 입증하는 시간이었지요. 우선 세계의 주요 거점들에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기를 쫓은 후 본 제단은 복음의 땅끝,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3년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스라엘 전역에 성결의 복음과 권능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후 지금도 영혼 구원의 사역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 선교의 뜻을 창대히 이루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자 뜻밖의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로마로 갈 때는 그들이 탄 배가 풍랑에 파손되었는데도 사람들은 모두 살았지요.

이 제단도 갖은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듣고 체험함으로 목자와 하나 되어 깊은 신뢰를 갖도록 은혜의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일꾼들이 많이 나왔지요. 그러나 제3도약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둔 만큼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한 이들이 있었던 반면 중간에 신뢰를 저버리고 떠난 이들도 있었지요. 예를 들어 디모데나 디도는 바울을 사랑하고 신뢰했기에 어떤 일을 부탁하든지, 어디를 가라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섬겼습니다.

아들처럼 함께하면서 수종들기도 하고, 바울이 명하는 대로 개척한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기도 했지요. 반면 동역자들 중에는 자기 유익을 좇아 바울을 떠나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했으며(딤후 4:10),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니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했지요(딤후 1:5).

이처럼 온전한 신뢰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값진 사역에 끝까지 동참할 수 없습니다. 신뢰로 온전히 하나 되어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는 주역이 되어 전 세계와 민족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곁에는 각각의 역할대로 바울을 돕는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직접 돌아봐 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려울 때 큰 위로가 되며 바울이 전도하려는 곳에 미리 가서 그 길을 예비하기도 하였지요. 두 사람은 바울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선교 헌금을 보내거나 고린도의 디도우스도, 빌립보의 루디아처럼 자기 집을 교회로 쓰도록 제공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위로와 힘이 된 오네시모로 같은 이도 있었지요. 실라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디디오처럼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심방 편지를 받아 적는 사람도 있었지요. 디도나 더디오는 먼 곳까지 가서 바울의 편지를 전하고 성도들의 답장을 받아오며,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보고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뢰로 하나 되고 여기에 더해 각자의 공의를 채운다면 각자의 위치에서 믿음과 달란트대로 영혼 구원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금식과 기도로 밀어주는 든든한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같은 기도로 영혼 구원 사역을 함꼐 돕거나 영혼을 갈무리하는 일꾼이라면 성실하게 기도와 심방, 전도에 힘쓰는 것이 공의를 채우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능력을 갖추는 만큼 영혼 구원 사업이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본분을 다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공의를 쌓는 일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몫을 다할 때 성결의 복음과 권능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세상에 전파되어 만민을 구원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행 20:24).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변함없이 영혼 구원에 힘써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천 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 년같이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알아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는 제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을 본받아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에는 권세가 따랐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더 거룩하게 살았지요.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주님의 뜻대로 마음에 할례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앓은병이 일어나 곁이며 악한 귀신이 나가는 역사도 일어났지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저와 이 제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힘입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랫동안 금식과 기도로 살았지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에 성결의 복음이 세계에 선포될 때 많은 영혼이 회

2.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는 제단의 주역이 되려면?

1) ‘신뢰’로서 목자와 온전히 하나 되어야
사도 바울 당시 바울과 신뢰로 하나 된 동역자들은 복음 전파 사역을 창대히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의 정도에 따라 바울에게 있는 말씀과 능력을 함입는 정도는 각각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회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제단에서도 성경을 믿고, 권능의 목자를 신뢰하는 분들이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세계 각지에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자를 신뢰하여 하나 된 정도에 따라 권능의 차원도 달라지며 점점 권능이 커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서는 각종 기사와 표적을 보고

2)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함으로써 공의를 채워야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세공했느냐에 따라 그 빛의 아름다움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되 영육 간에 자신을 아름답게 다듬는 만큼 그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예컨대, 세계로 나아갈 때 불같은 기도와 금식을 쌓고, 육으로도 덕스러운 언행과 교양을 갖추는 만큼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금식, 부단한 노력을 쌓는 것이 바로 각자의 몫이지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나는 주의 종도 아닌데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우리가 만민을 구원으로 이끌려면 주의 종만이 아니라 이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조직과 일꾼들도 든든히 서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기동처럼 떠받들 분들이 더 많아야 하지요. 바울도 혼자 모든 사역을 감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중심(中心)'이란 무엇인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

중심(中心)이란 마음에 새겨 굳어진 것이며, 마음 전체를 지배하는 근본의 힘이 된다. 선천적으로 부모의 기를 통해 물려받은 분야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각 사람이 스스로 마음 안에 무엇을 많이 받아들이고 새겼는지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벗어 버리고, 진리에 속한 것들만 마음에 새긴다면 누구든지 진실하고 온전한 중심을 이룰 수 있다.

◆ 변개함이 없는 곧은 중심과 함께 선(善)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 중심이 좋은지 아닌지를 보시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중심이 곧은가, 곧지 않은가,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변개함이 없는 곧은 중심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변개함 없이 한 번 정한 바를 이루어 가는 곧음이 있다 해도 그것이 자기 보기에 좋아서 취한 것이라면 좋은 중심이라 할 수 없다.

야곱은 곧은 중심이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 자기의 속에서 자기 유익을 구했기에 20년이나 연단을 받아야 했다. 세상에서도 한 번 정한 바를 변개함 없이 이루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

들이 있고, 심지어 악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신뢰할 만큼 곧은 마음도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이 진리 안에 들어와 철저히 깨어지고 변화된다면 좋은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좋은 중심이란 곧은 중심과 함께 선(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선이 없는 곧은 중심은 하나님 편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 즉 하나님 뜻에 맞출 때야 좋은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타고난 중심의 선을 말한다. 중심의 곧음이 결국 타고나는 부분이

큰 것처럼 중심의 선도 타고나는 부분이 크다.

어떤 사람은 중심이 선하게 태어났음에도 환경에 의해 잘못 보고 듣고 가르침 받아 입력됨으로 그 선이 가리어지고 악에 물들어 버린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잘못 입력된 것들이 진리로 변화되면 얼마든지 선한 중심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중심으로 나와질 수 있다.

이방인 선교에 앞장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자기의 생각과 의와 틀이 깨어지니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중심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경우이다.

◆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중심이어야 한다

중심이란 그릇의 재질이나 땅의 토질과 같다. 어떤 재질로 그릇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강도와 빛이 다르고, 어떤 토질이나에 따라 그 땅에서 수확하는 열매의 질이 전혀 다른 것처럼 중심은 타고난 근본의 바탕과도 같다. 은그릇을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금그릇에서 나오는 빛을 낼 수 없듯이 중심도 이 같은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타고난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정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무리 금그릇으로 타고 났어도 그 그릇을 닦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금그릇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진흙으로 구워진 그릇이라도 열심히 닦아 깨끗하게 하면 얼마든지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야곱은 간교한 속성이 있었지만 곧은 중심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타고난 중심의 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연단하셔서 마침내 목적인 쓰임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 가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좋은 재질의 그릇이라고 무조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택하여 쓰시고(딤후 2:21), 마침내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으로 들이시는 것이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 나간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선으로 이해하고 용서해 나간다.

반면에 '자신이 당한 것을 어떻게 하면 악으로 갚을까' 하는 사람도 있다. 바로 여기서 중심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처럼 같은 일에 대해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오는지 보면 그 중심을 알 수 있다.



만일 하나님 뜻을 알려 주어도 결국 좇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한다면 순종할 마음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중심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뜻을 알았을 때 순종할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중심인가? 또 상대가 악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악으로 갚으려는 중심인가? 아니면 그 악으로 인해 차라리 고통받더라도 상대를 이해하고 마음을 선으로 바꾸려는 중심인가?



중심이란 타고난 것이지만 하나님 능력으로는 능히 변화시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매순간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진리로 변화시키며,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내 마음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자신을 개조하고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순종하는 중심으로 합당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다.

	이재복 목사의 생명의 말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는 제단 ■ 믿음을 척량하시니 5-11 ■ 성령의 9가지 열매 5-9 ■ 창세기 강해 92-97 ■ 요한계시록 강해 103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6-10 ■ 십자가의도 13-17 ■ 2차 영혼육 9-14 	GCN TV설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6 (이수진 목사) ■ 생명과 평안 (이미경 목사) ■ 근본 마음 (이희선 목사) ■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3 (신동초 목사) ■ 열재앙 12 (정구영 목사) ■ 위로부터 난 지혜 2 (김수정 목사) ■ 연단은 내 뜻이다 (조수열 목사) 	예능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게) 2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34 ■ 내 마음의 찬양 21 ■ 창조와 과학 6 ■ English 7 ■ 모두 드려요 41 ■ 뷰티풀 라이프 6 ■ 즐거운 요리 21 ■ 흥겨운 소리 6 ■ 옛날 옛적에 14 ■ 플로리스트 11 	해외성회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4 ■ 회상 (시즈2) 8

“작은 섬김 속에 기쁨과 축복이 넘쳐요”

서홍자 권사 (46세, 3대대 25교구)

강원도 정선의 작은 마을,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근처에서 울려 퍼지는 교회 종 소리가 너무 좋아서 혼자 성전에 앉아있다 오곤 하였습니다. 집을 떠나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야 비로소 마음 놓고 교회에 다닐 수 있었지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각혈을 하여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좋다는 약을 복용하였으나 위 통증이 심해 계속 약을 먹을 수 없었고, 급기야 체중이 급격하게 줄고 호흡은 가빠졌지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상경하여 지인의 인도로 1991년 10월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는 매우 특별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설교 후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고 제가 폐결핵을 치료받으니 불교를 믿던 부모님도 교회에 다니게 되셨지요. 할렐루야!

1999년 결혼한 저희 부부는 2002년에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소금 판매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구제뿐 아니라 국내외 선교에 힘쓰시는 당회장님께서 주일에 전 성도가 먹는 국수 대금까지 담당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이때부터 소금을 교회에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어느새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런 작은 섬김에 하나님께서

는 마음의 기쁨은 물론 사업터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소금 거래처가 끊이지 않도록 늘 예비해 주셨고, 100평 남짓한 소금 창고도 수년 동안 세를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지요.

부업으로 다른 종목의 가게를 오픈할 때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더니 물질의 축복이 임했고, 최근에는 7:1의 경쟁률 속에 또 다른 매장을 열게 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온 가족이 천국 소망 가운데 충성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남편 김웅선 집사님은 총무 구역장으로, 저는 교구 조장으로, 두 딸 다영이와 하영이는 기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두 딸은 각각 예능위원회 소속 향유중창단, 단비중창단, 맑은소리중창단으로서 특송으로 영광 돌리고 있지요. 남장년 구역예배 장소는 혼자 사시는 남 성도님들이 계시다 보니 저희 집 차지입니다. 구역예배가 있



▲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한 가족(사진 왼쪽부터 둘째 하영 자매, 남편 김웅선 집사, 서홍자 권사, 첫째 다영 자매)

는 날이면 혼자 사시는 성도님들이 집 밥이 그리우실 것 같아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지요. 함께 식사하고 믿음의 대화를 하노라면 어느새 제 마음도 행복합니다.

아이들도 남장년 구역예배가 있는 날이면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자기들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 주더니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의 3층에 세를 놓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3층을 아이들 공간으로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이끄시며 귀한 제단, 참 목자를 만나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영육 간에 축복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화평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비노드 꾸마르 슈레스타 성도 (37세, 네팔만민교회)



제 아내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천식으로 목 주위가 심하게 부어올랐고, 때로는 통증까지 수반되어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할 때는 말하기도 힘들고 잘 먹지도 못하며 호흡 곤란 증세까지 나타났지요. 병원을 전전하며 주사도

많이 맞고, 다량의 약을 복용하였지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끊지 못했던 술, 담배를 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전화를 통해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자동응답서비스(ARS) 환자기도를 받으면서 몸이 호전되었지요. 2012년 1월에는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담임 이해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온전히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체험을 하며 아내는 제게도 신앙생활 잘할 것을 부탁하였고,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물질에 욕심이 많았던 저는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여전히 세상 쾌락을 취하며 방탕한 삶을 살

았지요. 이로 인해 가정에는 늘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 12월 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한 저는 십일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웬지 싫어져 저는 술을 끊게 되었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화평한 가정이 되었으며, 일터에도 많은 건축 계약이 이어졌지요.

제가 십일조를 드리기 전에는 살림을 꾸려가는 데 물질이 부족하여 힘들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2015년 4월에는 네팔의 대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아무런 피해도 없었고, 네팔만

민교회 성전 건축 시 총감독을 맡게 되어 교회 근처로 이사 올 수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네팔만민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네팔에 오신 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인 이희선 목사님에게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 10년 된 늑막염과 부고환염을 치료받았지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준비하였는데 응답받은 것입니다.

요즘 저희 가정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 속에 행복합니다. 더구나 2016년에는 남선교회 부회장이라는 귀한 사명을 맡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풍성한 축복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책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톨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7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2층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